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 위치는 100 W 49th Ave, Vancouver, BC V5Y 2Z6 캐나다로 버스와 지하철이 주변에 있어서 통학하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규모는 저희 학교 보다 작은 것 같으며, 그래도 도서관, 식당, 교실, 컴퓨터실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가 우리 학교와는 다르게 다 평지여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대해서 탐방 한 번 하고 나면 다 외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밴쿠버가 다문화 도시여서 그런지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볼 수 있어 좋았고, 더 자유롭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 내용은 초반에는 학교 적응을 위한 학교 탐방, 구글 앱 사용방법,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대부분은 영어 문법을 배웠습니다. 수업 방법은 저희는 16명 다 같이 수업을 들었고, EO (English Only)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차라리 수업을 통한 영어 실력 향상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다른 외국인들과 만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외국인 친구를 만들거나 홈스테이 머무는 동안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 수업 방법은 강사님이 벽에 사진을 붙여 놓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며, 또 일반 문법 수업은 그냥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하나의 숙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문법 수업보다는 차라리 숙어가 실용성 있어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강사님은

	착하시고, 저희를 잘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업이 평소에 s-flec에서도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어서 아쉬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전날 밤 30분 이하로 투자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과제들만 내주십니다. 매일은 아니고 한 1주일에 3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수업 준비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안 하고 가도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제만 열심히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첫 번째로는, 랑가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임시간이 있었습니다. 랑가라에 다니고 있는 주로 일본인 친구들이긴 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애기도 하고,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밌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국적의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시간을 맞추어 다른 시간에 함께 다른 곳을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쉽게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Museum of Vancouver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밴쿠버의 문화를 알 수 있었고, 생각보다 이쁜 곳도 많아 사진 찍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항상 activity는 수업의 연장으로 작은 과제를 내주셔서 그것들을 채우며, 밴쿠버의 문화들을 좀 더 재밌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Granville Island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색다른 매장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고, public market에서는 다양한 과일들과 pot pie라고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들도 맛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는 랍스터를 사 먹었는데 한국보다 싼 가격에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야경도 예뻐서 한 번 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컬링입니다. 저는 솔직히 활동 중에 컬링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컬링은 평소에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운동이기도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Vancouver Aquarium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아쿠아리움이 더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좋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물고기나 다른 것들을 구경하기보다는 이곳에서 시간마다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참여하는 것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활동들 중 4D 체험, 바다사자 먹이주기, 펭귄 보기 등 이런 활동들을 참여하려고 뛰어다녔는데, 이게 더 재밌었습니다. 그 후에는 Stanley park가서 자전거 타는 거 꼭 추천입니다. 주변에 있어서 가기 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apilano suspension bridge 여기서 먹는 핫케이크 같은 빵 너무 맛있었고요, 오랜만에 피톤치드 향 맡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수업들보다는 이런 외부 활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추가 비용 같은

	거는 들지 않았고, 각자 사 먹는 거 이런 것만 지불하면 돼서 돈이 별로 추가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물은 컬링 할 때, 장갑 필수, 방수되는 옷을 입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거기서 우비를 제공해 줘서 괜찮았습니다. 다른 활동들은 부가적인 준비물은 없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첫 주에는 눈이 많이 와서, 부츠를 여기서 사야 하나 고민했는데 둘째 주부터는 비가 많이 와서 눈이 다 녹아버려서 안 샀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후를 잘 보고 눈이 온다면 부츠를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비가 오락가락해서 큰 우산보다는 들고 다니는 것 보다는 작은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는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위험하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안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8시면 귀가했는데 거의 마지막 주에는 11시에도 귀가하고 그랬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저녁 되면 위험하다고 하니 안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굉장히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홈스테이 가족분들께 가자마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저는 물어봤는데 안전하다고 하였고, 정말 안전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저의 홈스테이 시설은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홈스테이 규칙도 일절 없었으며, 방도 넓고 화장실, 옷방도 방안에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7,8살 아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아기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방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평소에는 저에게 얘기도 많이 걸어서 영어 연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너무 잘 맛있고 가정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그 가족들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지

	않을 때는 아기들이랑 자전거도 타고, 방방도 타고, tv show도 보고, 보드 게임도 하고 저는 오히려 아기들이 있는 집이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정들어서 헤어지는 것도 서로 힘들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v)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주로 집에서 싸주시는 도시락을 학교 식당에서 먹었으며, 약간 부족할 것 같으면 subway나 학교 안에도 식당들이 있어 그것들을 이용하였으며, 마지막 주 뒤편에는 라면들도 싸가서 도시락과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은 친구들과하고 노는 날에는 주로 밖에서 먹고 들어갔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저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49번 버스로 한 20분 정도만 타면 바로 도착해서 환승 없이 쉽게 갈 수 있었고, 평소의 교통은 저는 한국보다는 캐나다 교통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거의 직진만 한다고 생각하면 쉽고, 구글맵을 이용하면 하루 만에 교통은 다 익힐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쇼핑	약 496,220	옷, 기념품, 맥 립스틱, 향수 등
음식	약 243,825	Sushi, french toast, 음료 등
문화 생활	약 59,428	Aqua bus, 교통 추가비용, 자전거 대여, gallery, skate 등
합계	약 799,473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가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분들과 연락해서 미리미리 뭐 챙겨가야 할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연락해서 샴푸, 바디워시, 드라이기는 안 챙겨 갔고, 폼클렌징 같은 개인 칫솔 이런 것만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선물을 저는 사 갔는데, 아기들은 학용품들하고 스티커, 캔디 같은거 사갔고, 어른들 거는 맥심커피, 장식할 수 있는 한복 입고 있는 그런 거랑 소주 사드렸습니다. 이 중에 장식품이랑 맥심커피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 귀국할 때쯤에는 저에게 이거 여기서는 살 수 없냐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하나 정도는 넉넉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큰 캐리어 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갔는데, 작은 캐리어에는 홈스테이 선물로 가득 챙겨갔다가 제 쇼핑한 것들과 기념품들로 가득 채우고도 쇼핑백 하나 초과할 정도로 많이 사 와서 캐리어 한 개 정도는 채어오실 각오로 짐을 여기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면 생각보다 아울렛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고, 한국보다 싼 것들이 많아서 계속 저도 모르게 구매하고 있어서 넉넉이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맛집 같은 거는 여기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현지에서 물어보고 추천해주는 곳 가면 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점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들어가서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저는 캐나다 음식점 다 맛있는 곳들만 간 것 같아서 너무 만족했고, 매일 거의 즉흥 여행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가시기 전에 어디를 방문하고 싶은지는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게 가서 여행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올 것 같다면, 부츠를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주에 눈 때문에 제 발이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 둘째 주부터는 비만 와서 괜찮았습니다. 첫 주는 패딩만 입

고 다녔고, 둘째 주부터는 후리스 하나만 입어도 될 정도로 괜찮았고, 친구들은 코트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날에는 주변 park에 가서 해지는 거 봐도 좋았습니다. Canada에는 park가 많아서 한 번쯤 가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기간이 짧을 만큼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일요일에는 1주일에 2번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노력했고, 나머지는 정말 열심히 놀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학교생활보다는 홈스테이 생활과 학교 끝나고 자유여행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홈스테이 생활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가정의 음식들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평소의 주말에 하는 활동들도 참여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또, 매일 아기와 보드게임, 자전거 타기 등 많은 활동들을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평소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캐나다인들에게 많은 일상 속에서의 예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3주간 생활하면서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사라진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단기 어학연수를 계기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매일 여행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기억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기억들을 발판 삼아 저의 진로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Canada place (Waterfront)



Olympic village



Gastown – Steam Clock



Stanley Park



Strathcona Park



Capilano Suspension Bridge